



## ECB, 유로존 523개 은행에 4,890억 유로 공급

김혜란 연구원

■ ECB(유럽중앙은행)는 지금난에 있는 유로존 523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4,890억 유로의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시작함.

- 지난 8일 금리정책회의에서 새로 도입한 3년 만기 장기대출에 대한 첫 입찰을 실시하여, 21일 유로존 은행권에 유로화 도입이후 ECB 사상 최대 지원 규모인 4,890억 유로를 배정하였으며 22일부터 대출을 시작함.
- ECB대출은 1%라는 저리에 무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신용등급이 A인 자산담보부증권(ABS)도 담보로 인정하는 등 담보 기준이 완화되었으며,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2,500억~3,500억 유로보다 훨씬 큰 금액을 공급하기로 함.

■ 이번 조치로 은행권 신용경색 우려는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.

- ECB대출로 유로존 은행의 유동성이 상당히 개선되어 내년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 2,300억 유로에 대한 차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유로존 은행들은 내년 한 해 동안 7,200억 유로의 채권 만기를 맞게 돼 자금 부족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며, 이들 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인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에 투자하는 “캐리 트레이드”를 꺼리고 있어 재정위기국 국채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.
- 현재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까지 예고된 상태에서 ECB대출은 재정위기를 해소 시키기에는 역부족으로 근본적인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음.

(Financial Times, Wall Street 12/21)